

大形 外幅 五尺八寸 外長 十二尺八寸五分 內幅 四尺四寸 內長 十一尺三寸 深二尺二寸 小形 外幅 四尺二寸 外長 八尺八寸二分 內幅 三尺二寸九分 內長 八尺深一尺八寸七分

井邑 長文里 五層石塔

李 殷 昌

全羅北道 井邑郡 古阜面 長文里에서 五層石塔 一基를 調査한 바 있는 데 造塔樣式에 參考가 될가 하여 이에 紹介한다.

古阜 古郡址(註)를 中心으로 그 附近에는 古代寺院의 佛跡이 많다. 古阜面事務所在地에서 東쪽으로 約二km 地點인 斗升山北麓 「양지」洞의 丘陵이 西傾斜를 이룬 곳에 西南向한 寺址가 있다. 寺址는 特別한 遺構나 遺跡은 없고 耕作地化한 밭가운데에 瓦片이 散在하고 있고 地下에 埋沒된 築臺石 一部分을 發見할 수 있었다. 그리고 耕作者인 一老人의 말에 依하면 얼마 前까지 重圈柱座가 造出된 礎石이 殘存하였는데 모두 石材로 搬出되었었다 한다. 이 寺址 東南쪽 언덕에 本稿에 問題를 삼고 있는 五層石塔이 서 있다.

石塔은 花崗岩 總高 六m의 雅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單基壇에 五層塔身이 重積된 方塔인 바 相輪部는 없어졌다.

基壇은 巨大한 一枚板石으로 된 地盤石 위에 四個石片으로 짜인 中石을 놓았으니 中石은 高가 낮고 兩側面石 사이에 前後面石이 끼워져 있으며 幅이 넓은 四隅柱가 刻出되었었다. 그리고 이 中石위에 勾配가 表示된 一枚板石의 甲石을 덮었으니 곧 低平廣大한 單基壇이 形成되었었다.

塔身은 各 一個石으로 된 屋身石과 屋蓋石이 重積되었었다. 第一層屋身石은 基壇甲石에 一階段 突起로 된 「괴인」위에 놓였는데 長大하고 四隅柱가 刻出되었었다. 五層까지 同一한 樣式으로 四隅柱가 刻出되었는 바 第

二層屋身부터는 急作이 短縮된 屋身高를 보이고 있는데 特別히 屋身石의 隅柱의 幅이 넓은데 注目된다. 屋蓋石은 모두 同一한 樣式인 바 屋表는 四區로 된 落水面 勾配가 緩慢하고 四隅降棟이 내려가다가 四隅角에서 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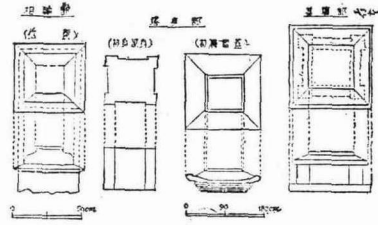


었다. 얇게 刻出된 鮮麗한 「屋蓋石받침」이 五段級으로 統一되고 檐下는 弧線을 보이는데 四隅轉角에서 輕快한 反轉을 이루었으니 곧 「屋蓋石받침」은 新羅石塔樣式에서 온 踏襲이고 「屋蓋反轉」은 百濟石塔樣式의 繼承인것 같다. 相輪部는 없고 露盤으로 推定되는 石片이 地上에 있다.

三

以上이 塔의 特異點은 모두 百濟石塔風으로 特別히 塔體의 모습과 感覺이 定林寺五層石塔의 系譜에 두어야 할 것이며 手法은 麗代로 推定된다. 定林寺五層石塔과의 同一樣式系의 石塔이 後代에 百濟故地에 많이 建立되었으니 곧 扶餘에 가까운 곳으로 長蝦里石塔、舒川庇仁石塔、鷄龍山오리石塔等이 있고 또 扶餘를 若干 멀리 떨어진 全羅道의 金堤歸信寺石塔、井邑隱仙里石塔等이 있고 長文里五層石塔도 新羅樣式이 보이지만 塔全體의 意匠은 百濟樣式의 一例라 하겠다. 이와 같이 後代에 建立된 百濟樣式의 石塔 分布狀態는 注目되는 바로 百濟故地에서는 언제나 定林寺五層石塔이 石塔婆의 祖宗으로서 그 樣式이 後代에 踏襲 再現된 것으로 생각된다.

實測值 單基壇 高 八〇cm 一邊長 一八〇cm、初層塔身 屋身 高 八九cm 幅 九二cm、屋蓋 高 四七cm 幅 一七〇cm
二層塔身 屋身 高 三四cm 幅 八〇cm、屋蓋 高 四〇cm 幅 一五三cm (以下省略)



石塔五層平面圖
井邑長文里五層石塔分解圖

〔註〕古阜는 馬

韓의 「古阜離國」이라는 學者도 있으며 三國史記 卷三十六 地理條에 「古阜郡本百濟古沙夫里郡、景德王改名」이라 한 「古沙夫里」가 곧 이古阜이니 일찍부터 歷史的 要地이었던 바 古

推火 奉聖寺址에 대하여

李 雲 成

邑(後方(北쪽)인 山頂에는 原始型을 보이는 土城址가 있고 또 古邑前方(南쪽)인 斗升山에는 石築 山城址(東國輿地勝覽에) 「斗升山……略……有石城、周一萬八百十二尺 號于大壑、疑瀛州時舊城也」가 있다. 그리고 이들 古跡地帶에는 佛敎遺跡도 많다. 곧 ① 古邑 鄕校南方에서 石燈火舍石 一個를 보았고 ② 龍興里 亥丁洞에서 石塔一基와 石佛立像(破損) 一軀를 調査하였고 ③ 龍興里 塔洞에서 石佛座像과 石塔殘石을 調査할 수 있었다. 이는 모두 高麗朝의 佛跡으로 往時의 佛敎의 盛況을 엿볼 수 있다.

密陽郡 山外面 金谷里 本村 뒷산에는 탑골(塔谷)이라는 절터가 있는데 여러가지 遺物이 發見되어 오던 중 최근 그곳이 三國遺事 寶壤梨木

條의 기록에 보이는 推火(密陽의 新羅時 古號) 奉聖寺의 遺墟임이 밝혀져 九世紀頃 羅末·麗初의 古蹟研究에 또 하나 중요한 資料를 얻게 된 셈이다. 近洞에 사는 父老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二十餘年前에 작은 金銅 부처 三軀를 發見한 일이 있었다 하나 지금 그런 事實을 立證할만한 사 람은 아무도 없으며 항아리(甕), 단지(壺)等 신라토기도 近處에서 흔히 發掘되는 일이 있다 한다. 昨年 十月頃 現地를 답사하여 이 一帶에서 수 집한 資料로서 數個의 기와 조각, 瓦器와 陶器의 破片, 石塔의 基壇面石 과 屋蓋石 各各 하나씩을 들 수 있는데 먼저 이러한 遺物을 통하여 奉聖 寺址에 對한 考察을 해보기로 한다. 이 답사에서 무엇보다 귀중한 所得 은 文字銘이 된 몇 개의 기와 조각(主로 丸瓦破片)을 수집한 事實인데 바 로 奉聖寺란 절 이름이 새겨와 表面에 새겨져 있었다. 세로줄로 楷行이 된 〈型押〉에 依하여 글자가 反對로 浮刻되어 있고 그 솜씨가 또한 古拙 하며 잘 써여진 行書와 楷書로서 그 놀린 型에 따라 字體의 浮刻도 비 교적 확실하였다. 또 特異한 花瓣文, 雲起文, 梵字 等を 押出한 丸瓦, 瓦當 조각을 수집하였고 象嵌靑瓷破片과 新羅土器의 조각도 散見할 수 있 었는데 모두 奉聖寺의 歷史에 緣由하는 遺物들이란 짐작을 해본다. 이밖 에도 石塔의 基壇隅石으로 짐작되는 柱形石材 한 개와 屋蓋石 하나가 아 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는데 그 中 屋蓋石은 軒尾가 水平이고 表面落水面 에는 굽은 골이진 傾斜面 四注形이오 屋蓋案面에는 整然하게 五段으로 이룬 받침을 形成하고 있다. 石材로 미루어 보아 羅末의 手法으로 된 꽤 規模가 큰 塔이라는 推測을 해보지만 흠어진 部分石을 다 收合하여 復元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을 斷定하기는 어렵다. 이밖에 壁石 두 개는 등 구 밖 돌다리(石橋)의 橋脚이 되어 있고 다른 部分石들도 그러구려 近方 어디선 가 散埋해 있을 것이니 鄉土文化財 保存 을 위하여 유감스러운 點을 함께 發見한 點이 된다.

다음으로 文獻上 奉聖寺의 由來와 그 位置에 對하여 考察해 보기로 한다. 三國



楷書體銘文瓦片 (奉聖寺)